

##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 갈라디아서

**1**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단체가 나를 사도로 뽑아 주어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도로 뽑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sup>2</sup>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드립니다.

<sup>3</sup>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up>4</sup>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sup>5</sup>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참된 기쁜 소식은 오직 하나뿐이다

<sup>6</sup>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sup>†</sup>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기쁜 소식을 따르고 있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sup>7</sup> 사실 다른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sup>8</sup> 우리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의 천사라도 여러분에게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sup>9</sup>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해 받은 것과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sup>10</sup> 내가 지금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 바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sup>11</sup>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sup>12</sup> 나는 그 기쁜 소식을 어느 누구에게서 받지도 않았으며, 어느 누구에게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을 때에 받았습니다.

<sup>13</sup>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교와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sup>14</sup> 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내 나이 또래의 다른 많은 유대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sup>15</sup>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sup>16</sup> 당신의 아들을 내게 보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방 사람<sup>‡</sup>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 **1:2 갈라디아** 아마도 바울이 첫번째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한 지역일 것이다(행 13-14장).

† **1:6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그리스어 사본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 **1:16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sup>17</sup>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sup>18</sup>삼 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는 베드로<sup>¶</sup>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그와 보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sup>19</sup>나는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빼고는 다른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sup>20</sup>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쓰고 있는 말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sup>21</sup>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sup>22</sup>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직접 알지 못하였습니다. <sup>23</sup>그들은 나에게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 버리려고 애쓰던 바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sup>24</sup>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다

**2** 그리고 십사 년이 지난 뒤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는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sup>2</sup>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 내가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한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3</sup>그때 나와 같이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전혀 할례받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sup>4</sup>이 문제는 우리들 사이에 몰래 들어와 있던 몇몇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살그머니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sup>5</sup>그러나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쁜 소식의 진리를 보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6</sup>교회의 지도자라는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다른 점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 그들이 크게 인정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sup>7</sup>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처럼, 내게는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up>8</sup>베드로를 유대 사람을 위한 사도로 일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을 위한 사도로 일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sup>9</sup>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나를 자기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맞아들인다는 뜻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계속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은 유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sup>10</sup>그러면서 그들은 단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간절히 하고 싶어하던 일이었습니다.

### 바울,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다

<sup>11</sup>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을 하기에, 내가 그를 마주 보고 나무랐습니다. <sup>12</sup>베드로는 처음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보낸 유대 사람 몇이 오자, 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방 사람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sup>13</sup>그러자 나머지 다른 유대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라 위선자가 되었고, 바나바까지 이들을 따라 위선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sup>14</sup>나는 이 유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sup>¶</sup> 1:18 베드로 글자 그대로는 ‘게바’. 게바는 그리스어 이름인 베드로에 해당하는 아람어 이름으로, 두 이름 다 ‘바위’라는 뜻이다.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 형제여, 당신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유대 사람답게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의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단 말입니까? <sup>15</sup> 당신과 나는 이른바 ‘이방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sup>16</sup>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sup>17</sup> 우리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뜻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sup>18</sup> 내 손으로 이미 헐어 버린 율법의 담을 내가 다시 세운다면, 오히려 나 자신이 율법의 가르침을 어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일 터입니다. <sup>19</sup> 실제로 율법은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sup>20</sup>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sup>5</sup>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주신 분입니다. <sup>21</sup>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하여 온다

**3**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으로 생생하게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sup>2</sup> 내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sup>3</sup>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와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 하다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sup>4</sup>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sup>5</sup>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sup>6</sup>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 주셨다.”<sup>\*\*</sup>라는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sup>7</sup>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sup>8</sup>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받아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sup>††</sup> <sup>9</sup>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sup>10</sup>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쓰여 있는 것을 꾸준히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sup>‡‡</sup> <sup>11</sup>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sup>5</sup> 2:2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sup>\*\*</sup> 3:6 아브라함이…주셨다 창 15:6.

<sup>††</sup> 3:8 모든…것이다 창 12:3.

<sup>‡‡</sup> 3:10 누구든지…것이다 신 27:26.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sup>¶</sup>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12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므로 살 것이다.”<sup>§</sup> §라고 하였습니다. 13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sup>\*</sup>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저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14 그분께서 우리를 구해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율법과 약속

15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계약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나면, 누구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 다른 내용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sup>†</sup>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자손들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사람을 뜻하고,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7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백삼십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맺으신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18 만일 상속<sup>‡</sup>이 율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19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sup>¶</sup>이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천사들을 거치고 중개자<sup>§</sup>를 거쳐 제정하신 것입니다.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중개자 없이 직접 맺으신 것입니다.

### 모세의 율법의 목적

21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어긋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성경<sup>\*\*</sup>은 온 세상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sup>††</sup> 통하는 것입니다. 23 이 믿음을 통한 길이 보이기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인 죄수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길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

¶ ¶ 3:11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합 2:4.

§ § 3:12 율법을… 것이다 레 18:5.

\* 3:13 나무에 달린… 받는다 신명기 21장 22-23절은 죄를 지어 사형을 받은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3:16 자손 글자 그대로는 ‘씨’.

‡ 3:18 상속 구원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나 선물.

¶ 3:19 자손 글자 그대로는 ‘씨’.

§ 3:19 중개자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쌍방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 3:22 성경 구약 성경.

†† 3:2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 있었습니다. <sup>24</sup>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개인 교사<sup>‡</sup>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sup>25</sup>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개인 교사의 감독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sup>26</sup>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sup>27</sup>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sup>28</sup>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sup>29</sup>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sup>¶</sup>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따라 상속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4**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sup>2</sup> 그는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후견인<sup>§</sup>들이나 재산 관리인들 아래 있습니다. <sup>3</sup>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의 종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sup>4</sup> 그러나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아래 계셨습니다. <sup>5</sup> 그것은, 아드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sup>6</sup> 이제 이방인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sup>\*</sup>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p>7</sup> 그러니 여러분은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 갈라디아 교우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

<sup>8</sup>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sup>9</sup>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전에 따르던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초보적인 세력들에게 돌아가려 합니까? 다시 그런 것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sup>10</sup>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날이나 달이나 계절이나 해를 특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sup>11</sup> 여러분을 위해 내가 애써 해 온 일들이 다 헛것이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sup>12</sup>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나처럼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sup>†</sup>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은 나를 푸대접하지 않았습니다. <sup>13</sup>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맨 처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sup>14</sup> 내 병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조금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 양, 아니 내가 마치 예수

<sup>‡</sup> **3:24 개인 교사** 이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6-10세 사이의 어린 주인이 밖에 나가면 따라가서 돌보아 주고, 학교에 갈 때는 책가방을 들어 주고,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보살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을 맡았던 노예를 가리킨다.

<sup>¶</sup> **3:29 자손** 글자 그대로는 ‘씨’.

<sup>§</sup> **4:2 후견인**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사람.

<sup>\*</sup> **4:6 아바** ‘아빠’ 라는 뜻의 아람 말로, 아버지를 부르는 정다운 말.

<sup>†</sup> **4:12 이방 사람인 여러분이…매이지 마십시오** 글자 그대로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sup>15</sup> 그때 여러분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sup>16</sup> 그런데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여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sup>17</sup> 그 사람들 <sup>‡</sup>이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갈라놓아서 여러분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sup>18</sup>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선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에나 마찬가지입니다. <sup>19</sup>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꼭 같아지기까지,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sup>20</sup>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하갈과 사라의 예

<sup>21</sup>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율법이 무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sup>22</sup>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sup>23</sup>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sup>24</sup>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 계약을 가리킵니다. 한 계약은 시내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갈입니다. <sup>25</sup>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범주에 듭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율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up>26</sup>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sup>27</sup>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이 낳는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고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sup>¶</sup>

<sup>28</sup>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sup>29</sup> 그러나 그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sup>30</sup>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상속자가 될 수 없다.”<sup>§</sup> 라고 하였습니다. <sup>31</sup>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인인 여자의 자녀입니다.

<sup>‡</sup> 4:17 그 사람들 갈라디아 지방의 믿는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짓 선생들 (1:7).

<sup>¶</sup> 4:27 사 54:1.

<sup>§</sup> 4:30 여종과...될 수 없다 창 21:10.

###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라

**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sup>2</sup> 잘 들으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분이 됩니다.<sup>3</sup>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모세의 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sup>4</sup>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sup>5</sup>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는 우리의 희망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희망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sup>6</sup>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곧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sup>7</sup>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sup>8</sup>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쓰인 논쟁들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sup>9</sup>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다.”\*\*라고 하였습니다.<sup>10</sup>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 말고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벌을 받을 것입니다.

<sup>11</sup>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십자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sup>12</sup> 할례 문제로 여러분을 선동하는 그 사람들은, 할례에서 그치지 말고 아예 자신들을 거세<sup>††</sup>까지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sup>13</sup>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핑계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sup>14</sup> 율법 전체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sup>‡‡</sup>는 이 한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sup>15</sup> 만일 여러분이 계속 서로를 물어뜯고 집어삼키려 들면,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성령과 인간의 본성

<sup>16</sup>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sup>17</sup>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려고 이 둘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sup>18</sup>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sup>19</sup>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저지르는 짓들은 분명합니다. 성적 부도덕, 더러움, 방탕,<sup>20</sup> 우상 숭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성냄, 이기적인 야망, 분열, 분파,<sup>21</sup> 시기, 술 취함,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연회,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지금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sup>22</sup>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sup>23</sup>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sup>24</sup>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는 사람들은

\*\*5:9 적은 누룩이...부풀린다 (그릇된 작은 가르침 같은)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거나, 한 사람이 모임 전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의 격언.

††5:12 거세 남자의 성기 일부를 잘라 버리는 것. 바울은 자기가 거저 선생들에게 단단히 화가 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5:14 네 이웃을...사랑하라 레 19:18.



자신들의 이기적인 본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sup>25</sup> 이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시다.<sup>26</sup> 우리는 잘난 체 우쭐거리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 서로를 도와라

**6**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거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sup>2</sup>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sup>3</sup>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sup>4</sup>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sup>5</sup> 사람마다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sup>6</sup>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어 써야 합니다.

### 인생은 들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sup>7</sup>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sup>8</sup> 죄로 가득 찬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sup>9</sup>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지치더라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면, 때가 무르익을 때에 거둘 것입니다.<sup>10</sup>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 바울, 편지를 끝맺다

<sup>11</sup>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씁니다.<sup>12</sup>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sup>¶</sup> ¶ 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박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sup>13</sup> 그리고 그들은 할례는 받지만, 실제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두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sup>14</sup>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심이 오래 전에 죽었고,<sup>§</sup> § 나에 대한 세상의 관심 또한 이미 오래 전에 죽었습니다.<sup>15</sup>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sup>16</sup> 이 원리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sup>17</sup>이 편지를 끝내면서, 아무도 더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입은 상처 자국들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 **6:12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기쁜 소식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쓰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 곧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이였다. 6:14에서도.

§ § **6:14 죽었고** 글자 그대로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 **6:17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맞은 적이 있었다.

<sup>18</sup>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